

### 5월의 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성회와 선교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를 준비하는 DCEM과 성회를 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주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과 DCEM이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쁨 부어 주시옵소서.
3.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5. 연약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 아멘 -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정경자, 함석숙, 최인철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나 청소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암 병동에는 의사보다 간호사와 청소부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매우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나 청소부가 환자 병실에 들어와서 환자에게 "오늘은 얼굴색이 좋네요. 목소리에 힘이 있네요. 전에 계신 분도 이렇게 변화가 오더니 병 고침을 받고 나갔어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침을 잘 먹고, 일하러 나갔다가 얼마 후 복통으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을 했는데 동료들에게 "오늘 당신 얼굴이 왜 이래? 요사이 유행병이 돌아다니는데 걸린 것이 아니야? 병원에 가 봤나?"라는 질문을 받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머리가 아픈 것도 같고 몸에 열도 나고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집에 가서 드러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래에게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세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 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위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의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공황을 극복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인생에 실패할 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9세라는 나이에 갑자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 사람들은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수군거렸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부정적인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매일매일 걷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마침내 정치 무대에 다시 설 수가 있었고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pril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아시아 중화권 복음전파의 전초지

### 싱가포르·대만 성회를 되돌아보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전세계 어느 곳 이든 복음을 듣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러 갔다. 중화권 국가들도 조용기 총재목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심히 열매를 맺고 있다. 아시아 중화권 복음전파의 전초지인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열린 지난 성회를 되돌아보며 더 많은 영혼들이 속히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DCEM 주관으로 싱가포르 중심지에 위치한 선택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012년 4월 이틀간 열린 성회는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연인원 3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오준 싱가포르 대사(現 세이브터칠드런코리아 이사장) 부부 등 종교계인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믿음'과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싱가포르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중국인들도 대거 참석해 조용기 목사는 중국복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청년들을 축복하며 "이제 중국 선교의 사명감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회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싱가포르를 통해 기독교 복음이 중국대륙과 전세계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비전을 심어준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싱가포르와 함께 대만도 중화권 복음전파의 핵심이 되는 국가다. DCEM 주관으로 대만에서 개최된 성회 중 지난 2016년 4월 카오슝에서 이틀간 열린 성회에는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대만 카오슝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파였다. 당시 대만의 복음화율이 5%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성회에 앞서 열린 환영 및 감사 만찬에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과 중화권 목회자, 우리교회 장로와 성도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만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장마오송 목사는 "지난 30년간 조용기 목사님이 대만교회의 성장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다"며 조용기 목사의 영성을 닦기 위해 '조용기 목사학교'를 설립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만교회들을 대표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꿈을 바라보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설교 후 신유기도 시간을 가졌다.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성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만의 정치불안정과 2016년 연초 카오슝 지진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화권 목회자들과 대만에스라스아역연구소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갖는 등 간절한 기도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회 후 대만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데일리'는 조용기 목사를 인터뷰하며 4차원의 영성, 한국교회회의새벽기도, 성령운동 그리고 대만교회의 비전과 중국 대륙선교의 비전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DCEM이 주관한 총재 조용기 목사의 지난 싱가포르·대만 성회를 돌이켜보며 앞으로 다가올 성회를 생각한다. 전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말씀을 따라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가 빠진 사람은 기쁨이 떨어진 자동차 같아서 모양은 근사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삶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야만 합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는냐?”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며 먹을 것과 모든 것이 있는 에덴의 낙원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누가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켰습니까? 그 배후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악한 영향을 미친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엇이 형이 아우를 죽일 만큼 마음 속에 불붙는 질투심을 일으킨 것입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불같은 질투심을 일으키게 가인이 그 아우를 쳐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요일 3:12).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판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온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배후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어야만 진정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으며 70인의 제자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6:17-18).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2. 성령으로 충만한 삶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어둠은 빛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사회 국가와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운행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운행하시면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마 7:7)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이상 주님께 고할 것을 고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나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날은 어떤 일을

생기가 넘치는 삶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중략) ....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17절)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에 생활에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3.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차원의 성령께서 3차원의 세계에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삽니다. 아무리 형편이 나빠도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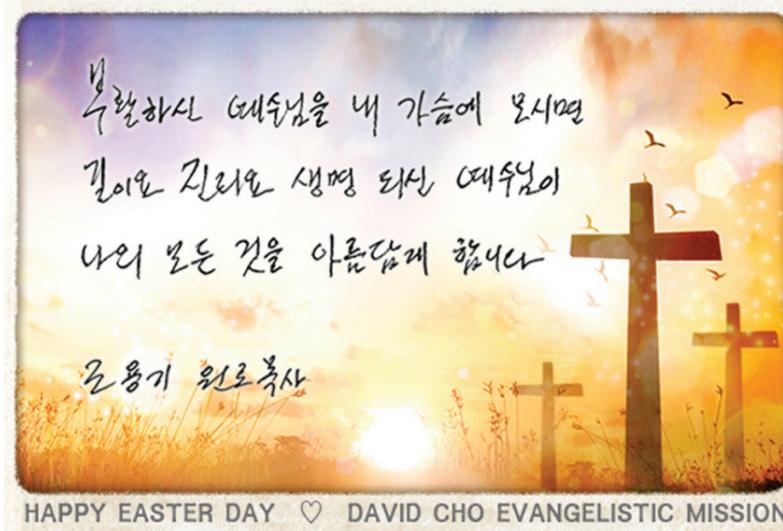
성령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막 11:23).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의 광장입니다.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광장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귀신들과의 대화의 광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대속 중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여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날마다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하십시오.

이런 영적 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생기가 살아나고 빛나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생활에 변화와 창조를 경험하고 날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죽음 뒤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 신앙이 2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2천 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죄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번 부활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함께 성전에 모여 성대한 행사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태)을 선언했고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주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에서 “창립 62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환경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라고 강조하며 몸이 아픈 이들의 회복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하신 말씀을 따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日 군마(순)교회 취임 감사예배 드려

세계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천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죽어간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웃의 고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확진받아 아파하는 이웃들, 경제적 불황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사진들, 코로나 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이웃들과 함께 울

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게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영적 구제에 대한 사명이 중대해진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서는 지난 3월 23일 군마현 마에마시시에 위치한 순복음군마교회에서는 후임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김기태 선교사)가 열렸다.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일본총회 총회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21~22)에 대해 설교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리적으로 교회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가운데, 순복음동경교회를 비롯한 일본 순복음 선교지에서는 영적 구제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등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전파의 기회로 여기며 신앙의 전진에 매진하고 있다.